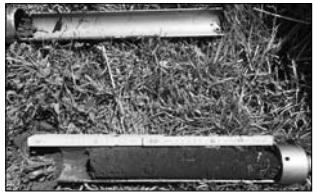


국내 초지 온실가스 흡수계수 개발

농진청, 국제기준 적용할 때보다 초지 온실가스 흡수량 약 2% 향상

우리나라 초지에서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가 처음 개발돼 국제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정확한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이 가능해 졌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로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 1종을 경화대 학교(유기염 교수팀)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초지 온실가스 흡수계발을 위한 깊이별 토양 채취 모습.

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화산회토 1종에 대한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개발했다. 이를 가장 먼저 개발한 이유는 우리나라 초지의 55.4%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토양의 99%가 화산회토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단위: CO₂톤/ha)는 '이아피시(IPCC) 2006'에서 제시하는 80보다 높은 95이다. 이를 활용해 2021년 기준 국내 초지 면적에 적용하여 초지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하면, 흡수량이 전년 대비 약 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지난해 12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최종 등록했다. 올해 진행하는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산정부터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를 활용하면 국내 초지 환경을 반영한 정확한 흡수량 산정이 가능해지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우리나라 초지 환경을 고려한 온실가스 흡수계수 3종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 분야의 흡수 또는 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많을수록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적어져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상훈 과장은 "초지는 축산분야 유일의 온실가스 흡수원이다"라며 "이번에 처음 개발한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에 이어 토질에 따른 흡수계수를 추가 개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합동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식목일 기념 '새만금 나무심기'

새만금개발청·공사, 합동 개최... 교류와 화합의 장 마련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새만금공사)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합동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0년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작년 7월 개통된 남북도로의 교차로 수변공원에서 이뤄졌고, 새만금청 및 새만금공사 직원 100여명이 해송 250주와 조팝나무 1,800주를 함께 심었다.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외로 나와 행사에 참여해보니 새만금에 원만한 봄이 온 것을 느낀다"라며, "이번에 심은 해송과 조팝나무가 건강하게 뿌리내려 새만금을 찾는 이들에게 포근한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새만금 나무심기 행사는 새만금청의 현장 이전 직후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식목행사를 진행했던 2019년 이후 5년 만에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가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추진하였으며, 양기관은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사업을 주도하는 두 기관이 행사를 함께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다"고 전했다. /김재훈기자

전북환경청, 하천 주변 가축분뇨 퇴비 집중관리로 녹조 예방

용담호 유입 하천 주변 가축분뇨 퇴비 보관실태 현장 조사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녹조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용담호 유입 하천을 대상으로 진안군 등 3개 지자체와 함께 가축분뇨 퇴비 보관실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천변 주변에 방치된 가축분뇨 퇴비로부터 발생된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섞여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용담호 내에 녹조발생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현장조사 결과 야적퇴비 보관 28개소 중 하천변 주변 공유지에 14개소(50%), 사유지에 14개소(50%)가 확인되어 5개소는 수거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야적퇴비도 모두 수거

조치할 계획이다.

야적퇴비 소유주에게 늦어도 4월까지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민간퇴비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등 공공부지에 보관해서는 안되며,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섞여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또는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어야 한다.

또한, 퇴비를 부정적 보관하거나 방치하여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고, 인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주기적(하가는 1회/6월, 신고는 1회/연)으로 부속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합 판정된 퇴비는 사전 협의된 농경지에 운반 즉시 살포해야 한다.

한편, 가축분뇨 야적퇴비 관리의 주요 위반 사례, 퇴비 살포 요령 등 가축분뇨 퇴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수록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지역주민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전북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안내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전북서남상의, 2개 회원사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종필)는 제71회 상공의 날을 맞아 모범상공인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2일 전북 서남상공회의소에서 있었다.

이날 수상에는 (유)경보통신 정종순 대표이사, (주)범농농업회사법인 임종배 대표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정종순 대표이사는, 1993년 회사를 설립해 지역 통신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줬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정읍교도소 수용자들의 교정 교화에 노력한 결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성실한 납세의무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종배 대표이사는 1995년 회사 설립 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국내 최대의 '육묘용 트레이 전문 생산업체'로 성장해 매년 국내외 및 해외 전시회에 참석해 2022년에는 수출 50만불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종필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위해 많은 힘을 흘리며 애써주시는 수상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유=김대환 기자

전북개발공사, 전주평화 지안리 아파트에 범죄예방 위한 고화질 CCTV 설치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전주 시 평화동 소재 지안리 아파트에 노후주택 입주인 주거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2개월간 400만 화소급 고화질 CCTV 101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전북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임대아파트 범죄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난해 익산송화 지안리 아파트를 시작으로 CCTV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며, 올해까지 2개 단지(익산송화 지안리 700세대, 전주

평화 지안리 500세대)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 기존 설치된 CCTV는 사람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등 식별하기 어려워 범죄가 발생해도 범죄현장이나 범죄자의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사는 고화질 CCTV 개선사업을 통해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얼굴인식, 차량식별이 가능해져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욱기기자

탄소산업진흥원, 융복합소재부품 기술력 기업 모집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경민 이하 탄진원)은 수요자 연계 제품 사업화를 통해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산업을 선도할 기술력 있는 참여기관(기업)을 18일까지 모집한다.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사업은 국산 탄소소재 및 융복합부품을 실제 수요환경(수요처)에 적용,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를 통해 시장창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탄소소재를 활용한 부품 제작·개발,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 등을 비롯해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성능평가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과제는 15개 내외로 모집 분야는 △시장창출형(연차별 최대 7~9억원 이내), △아이디어형(연차별 최대 3억원 이내)으로 구분되며, 시장창출형의 경우 기업수요와 공공수요 형태로 구분해 수행기업을 모집한다.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사업은 탄소섬유,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 6대 탄소소재 기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산업을 선도할 기술력 있는 기업을 18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경.

공급-수요 기업 간 연합체를 구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장창출형의 경우 지정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아이디어형의 경우 탄소산업 생태계 확산 및 시장창출을 위한 아이템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다.

실증 사업 수행기간은 시장창출형의 경우 최대 3년 이내, 아이디어형의 경우 최대 2년이며, 수행 종료 후 성과확용기간은 5년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